



가천길재단
Gachon Gil Foundation

가천대학교

하와이캠퍼스

AI학과 / 배터리학과

창업대학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가지정 지역암센터평가 종합 1위

최상의 심뇌혈관센터

세계 뇌과학 연구 선도(11.74T MRI 개발)

꿈의 중성자 암치료기(임상시작)



국내 최초 길병원 닥터헬기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4 Vol. 156

겨울

茶文化



ISSN 2466-250X

44

차가 주는 가장 큰 기쁨, 나를 만나다



기암(嵒庵) 정홍명(鄭弘溟, 1582~1650)

세상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실감하는가 보다. 철없을 때는 세월이 흐르지 않아 조바심을 낸 적이 있다. 빨리 어른이 되고픈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모든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야 삶의 이치를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차시를 담백하게 읊은 시인이 조선 시대 기암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이다. 정홍명은 송강 정철의 넷째 아들로 구봉 송익필, 성혼,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저서로는 기암집과 기옹만필 등이 있다. 기옹만필에서 “경솔한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적으면서 그는 시를 통해 경솔함을 경계했다. 그의 시 저녁 눈(莫雪)은 이렇다.

어둠 내리는 하늘에 세찬 눈紛紛하고 / 거세게 바람 불어 지붕 연기 물아가네.
외로운 심사는 고달프고 평상은 차가워 / 손수 주전자에 홀로 차를 달이네.

참으로 담백한 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사가 만만찮다. 자연을 빗대서 삶의 고단한 심사를 표현한 시다. 모진 풍파를 헤치고 잔잔히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면의 나뭇잎에 없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달래주며, 세상 풍파에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역시 ‘차’일 수밖에 없다. 기암은 그런 마음을 저녁 눈으로 표현했다.

세상의 영욕은 다단하여 알 수 없으니 / 천기를 보존하여 몸속에 간직할 뿐.
낮잠에서 깬 뒤 아무 일 없어 / 가만히 아이더러 차 달이라 하네.

선시 같은 느낌의 이 시는 세상의 영욕이 부질없음을 말하고 있다. 차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차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한다. ☯

[표지 이야기]

읽음이 뭐다보니 어느덧 2024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신년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계획을 실천한 2024년이었습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을 뒤로하고 다시 2025년을 향해 달려갑시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4 Vol. 156 겨울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차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보다 많은 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006 특집 1 제25회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 024 특집 2 명예이사장님 산소 이전
- 030 특집 3 임원 보수교육 및 규방다례 공개행사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46 선조의 품격 |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
- 050 건강한 삶 | 갱년기와 호르몬 치료
- 053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70 규방다례 소식 | 무형유산대축제 규방다례 참가
- 072 협회 소식 | 제27회 전국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 외

茶情茶感 • 찾았이 맺어준 인연

- 077 지부사랑방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수원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충북지부
- 102 자격검정 시행 공고
- 103 제64회 동계연수회 개최 안내
- 104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105 우송료 명단



차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보다 많은 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신년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력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2024년도 협회의 행사에 임원을 비롯하여 각 지부장 및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훌륭하게 마무리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우리 차문화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1,300여 년 동안 그 본질을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차문화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생활 속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소통하며,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느껴지는 정신문화의 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은 고요함과 집중, 그리고 차를 나누는 따뜻한 순간들은 나 자신과 조우(遭遇)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차를 통해 나와 남을 존중하는 삶, 친절한 삶,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이 실현됩니다.

얼마 전 우리 협회는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 공개행사를 개최하여 일반시민과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는 '소통'과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차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게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한국의 차문화가 젊은 세대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차문화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문화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공간을 차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야겠습니다. 문화가 국력인 시대 문화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차문화를 알리는 것은 회원 확보 및 우리 협회의 자긍심을 넓히는 기회도 되지만, 우리의 소중한 차문화를 알리는 기회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오랜 전통 속에서 꽃피운 우리의 차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려 보다 세련되고, 보다 폭넓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 지부와 함께 성장 발전하면서, 차문화가 글로벌 문화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협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폭넓게 지원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을사년 '뱀띠'입니다. 뱀은 지혜와 신비의 동물로 선불리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정해진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2025년 더 많은 도전을 통해 한층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겨울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화려하게 개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대축제가 지난 10월 19일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풍류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규방다례보존회와 한국차문화협회,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천대학교, 가천박물관, 가천길병원, 한국청소년연맹이 후원하고, 한국제다, 햇차원이 협찬한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에는 150여 명의 전국 청소년들이 '차예절경연대회'를 펼쳤다.



전통 사상인
효, 예, 지, 인의
정신이 깃든
인설차문화전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가 지난 10월 19일 오후 1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개최되었다. 최지원 인천지부장은 “이 행사는 지난 40여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차문화 보급과 올바른 차예절 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규방다례보존회 겸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본선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차예절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라고 경과보고를 했다.

식전행사로 가천대학교 학생들의 선비다례 시연이 진행되었다. 선비다례는 절도와 당당함으로 차를 우리고,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조선 시대 선비들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오후 1시 정각 최소연 이사장과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인설차문화전이 개최되었다. 정건영 전 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이번 인설차문화전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한 청소년들의 기량이 한층 높아졌음을 뿐만 아니라, 차문화 경험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면서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孝)·예(禮)·지(智)·인(仁)의 정신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능만 있고, 예가 없다면 그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야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글로벌 문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가 깃들어 있기도 하지만, 인류 보편적인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전통 차문화를 기리고 차 예절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차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차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최소연 이사장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가한 내외 귀빈 소개와 함께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는 대회뿐만 아니라 체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되어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님께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축사



김천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경과보고



식전행사 선비다례 시연

명예회장 축사

차(茶)로 되살리는
전통문화와 멋



2024.10.19

사랑하는 전국의 차인(茶人) 여러분. 제25회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문화는 그 나라의 국격이요, 국력입니다. 우리 차문화는, 1000년 넘게 계승 발전되어온,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한때 나라를 잃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차문화도 단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저(이길여 가천대 총장)와 고(故) 이귀례 차문화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다시 꽃피우고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종로 거리에서 '국산 차 애용'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가행진한 일이 었그제처럼 생생합니다.

조선 후기의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 남양주로 귀향하면서 강진에서 인연을 나눈 제자 18명과 다신계(茶信契)를 맺었습니다. 사제 인연을 소중히 여긴 다산이 차를 매개로, 헤어져 있더라도 믿음을 이어가자며 만든 모임입니다.

제자들은 시와 차를 지어 멀리 다산에게 보냈습니다. 다신계(茶信契)에는 “곡우(穀雨)와 입하(立夏)에 차를 만들고 봄가을 두 차례 시를 짓자”라는 회칙이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과 제자들의 끈끈한 정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산 시절의 차(茶)로 맺어진 우정과 사랑, 믿음의 문예(文藝)가 부럽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여러분은 다산과 그 제자들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문예의 품격을 되새기며 차인으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로 믿음과 사랑의 인연을 이어갔던 선인(先人)들처럼 우리도 소중한 전통문화의 멋과 가치를 계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성을 기울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규방다례보존회, 차문화협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최소연 이사장님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천길재단 회장 | 가천대학교 총장 | 의학박사
한국차문화협회 명예회장 이길여



2024.10.19



2024.10.19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호를 사용하여 치러지는 행사로 어느덧 25년이 되었다. 2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대상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그 권위에서 최고의 대회가 되었다.

규방다례는 한국전통 차(茶) 문화를 복원, 계승하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차문화협회의 전국 27개 지부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생활 속의 차문화를 보급, 확산시키고 있다.



2024.10.19



2024.10.19



2024.10.19



2024.10.19



2024.10.19



2024.10.19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대학(일반) 부로 진행되었다. 유치부와 초등부 심사는 노영숙 이사, 박삼숙 이사, 이명숙 이사, 이정희 이사, 김경자 이사가 맡아주었다. 이명숙 이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를 내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중등부와 고등부 A조 심사는 권혁화 이수자, 하식 이수자, 이석예 이사, 변명선 이사가 했다. 대학부 A는 김태임 아산지부장, 이막동 이사, 강순란 충북지부장, 연구남 경기지부장이, 대학부 B는 박숙희 충북지부장, 박광옥 서울제2지부장, 강정자 부회장, 이림 전북지부장이, 고등부 B는 황미경 경남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최정희 이사가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었다.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박광옥 부회장은 “심사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옷차림, 둘째 기본예절, 셋째 절하기, 넷째 차내기를 기본적으로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차예절은 생활 속에서 차를 내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수상의 결과를 떠나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들이 모두 대상이라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전에 기념식이 열렸던 풍류관에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 앞서 웨스트앙상블의 연주와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식이 있었다. 추첨식에는 협회 이사님들이 추첨해 주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자전거 3대 행운권 당첨자는 공교롭게도 대학생들이었다. 행운권 당첨자가 모두 끝나고 부문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영광의 대상은 가천대학교 이지섭 학생에게로 돌아갔다. 이지섭 학생은 “최소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한 것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이 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의 차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



고등부 A 심사위원



고등부 B 심사위원



유.초등부 심사위원



대학부 A 심사위원



대학부 B 심사위원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영광의 수상자들

유치부, 초,중,고,대학부 등5개 부문으로 펼쳐진 경연대회에서 영광의 수상자들이
가려졌다. 최우수 대상에는 가천대학교 이지섭 군이 수상했다.
아래 사진은 영광의 수상자들이다.



대상

2024.10.19



박광옥 부회장의 심사평

2024.10.19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24.10.19



최우수상(인천광역시장상)

2024.10.19



최우수상(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상)

2024.10.19



최우수상(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

2024.10.19



최우수상(가천대 총장상)

2024.10.19



최우수상(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

2024.10.19



우수상(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상)

2024.10.19



우수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우수상(한국청소년연맹 총재상)



장려상(가천문화상 고등부)



장려상(가천문화상 대학부)



우수상(경인일보 사장상)



우수상(가천박물관장상)



특별상



특별상



우수상(가천대 길병원장상)



장려상(가천문화상 초등부)



차꽃상



행운권 추첨에서 자전거 3대가 주어졌다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인설차문화전은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호로 지정된 차예절대회로 우리나라 최고의 청소년 차예절대회이다. 인설차문화전에는 전국 27회 지부에서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강원지부



서울제2지부



경남지부



인천지부



서울제1지부



가천대학교 학생

분당메모리얼파크 Forest Heaven 묘소에 인설, 영원히 잠들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큰 역사 마무리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이자 한국차문화협회·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님이었던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산소가 이장되었다. 이번 산소 이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빛낸 유명인의 묘소인 Forest Heaven으로 영구히 이전되어 편안한 안식처에 들게 되었다.

한국 차문화의 선구자였던 인설 명예이사장님의 묘소 이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현재의 묘소보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참배할 수 있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산소 이전은 지난 9월 8일 분당메모리얼파크 Forest Heaven 묘소로 이장하게 되었다.

한국 차문화의 거목 인설 묘소 이전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이장은 2024년 9월 8일 인천시 무형유산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박상주 보유자의 집례로 진행했다. 오전 7시 산신께 알리고, 헌다, 헌제, 개토 순으로 진행했다. 9월 8일에는 최소연 이사장과 유가족, 협회에서는 강정자, 박광옥 부회장과 관계자 몇 분만 참석했다. 개토 후에는 화장과 유골함 봉안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오전 7시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박상주 보유자의 집례로 산신께 개토제를 지냈다. 개토제를 지낸 후 최소연 이사장 및 유족과 협회 부회장님께서 헌다를 올렸다. 박상주 보유자는 “다른 곳으로 이장함을 삼가 고합니다.”라고 고했다.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한국 차문화의 부흥기를 이끈 차인 1세대로 평생 차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귀한 차인이다. 인설 이귀례(李貴禮) 명예이사장은 1929년 전북 군산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동학운동을 했던 할아버지로부터 행다법을 보고 익혔다.

1979년 '한국차인회' 창립준비위원으로 본격적인 한국 차문화 보급 대열에 참가하기 시작한 이래, 1984년 차문화 동호회인 '인설회(仁設會)'를 구성했으며, '다신계(茶信契)' 부회장(1988), '한국차문화협회' 회장(1999)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해외에서 우리 규방다례 시연과 전통 궁중의상 소개 행사를 가졌고, 국내에서는 도서지



역 등 문화 소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문화를 통한 예절 교육에 힘써 왔다. 제2회 초의문화상(1993), 명원차문화대상(2002), 인천광역시 교육대상(2002)을 수상했고, '문화의 날'(2000)에 국내 차인으로서 최초로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훈하였으며, 제29회 인천시로부터 생활다례인 규방다례 무형문화재(제11호)로 지정받았고(2002), 제35대 신사임당(2003)으로 추대되었다.

가천문화재단 부이사장, 가천·경인문화대학 학장, 2001·2002 '한국 방문의 해' 명예홍보사절을 역임했으며, 가천박물관 관장, 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상임대표, 인천시 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최소연 이사장 외 협회 임직원 참배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묘소 이후 9월 10일에는 협회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성묘 겸 이장에 따른 헌다식을 개최했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지부장, 이수자, 회원, 직원 순으로 명예이사장님께 헌다례를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오늘 햇볕 바르고 바람 잘 통하는 명당 자리에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어 누구보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또한 차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명예이사장님께서도 참으로 좋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새롭게 조성된 명예이사장님의 묘소는 한국 문화를 선도한



분들만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으로, 더욱 뜻 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예이사장님께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차인들에게도 큰 자긍심이 되었을 줄 압니다. 한국 차문화계의 큰 어른이자, 한국차문화협회의 정신적인 기둥이셨던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묘소 이장에 각계에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성묘에서는 부회장단을 비롯하여 협회 직원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껏 명예이사장님께 헌다를 했다. ☯

2024년 협회 임원 보수교육 및 규방다례 공개행사

1박 2일 동안 송도와 인천을 오가며 공개행사 준비



협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규방다례 연습실에서 임원보수교육 및 정기전승 공연을 가졌다. 11월 15일 오후 1시부터 임원보수 교육 및 규방다례 정기전승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 최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지도로 이루어진 임원보수 교육 및 규방다례 정기전승은 어느 해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부장 및 임원 한몸이 되어 연습하다

임원 보수교육 및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협회 지부장 및 임원은 11월 15일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과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50여 명의 임원은 인천센트럴파크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1일차 임원 교육을 마친 임원은 인천 송도의 '송도들밥'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우정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송도센트럴파크에 들러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1일차 교육에 대해 답소를 나눴고, 11월 16일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11월 16일에 오전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구내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은 회원들은 다시 인천시전수교육관 풍류관과 연습실에서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를 최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박광옥 전승교육사로부터 세심한 지도를 받았다.

첫날 교육은 전수교육관 풍류관 제1연습실, 제2연습실에서 진행되었다. 제1교실에서는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배례나 규방다례는 평소 하지 않으면 잊기 쉽습니다. 오늘 그동안 잊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가며 제대로 배워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제2연습실에는 최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전승교육 사의 생



2024.11.15

임원 교육 및
정기전승 공연 연습



2024.11.15



2024.11.15

임원 보수교육을 지도하고 최소연 보유자, 박광옥, 최미리 전승교육사



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가 진행되었다. 최소연 보유자는 “생활다례, 선비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를 가르치면서 우리 선조들의 예법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립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통존중, 예절존중, 과학존중, 생활존중, 청결존중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정신에 나타나듯이 우리의 규방다례는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정립된 우리 고유한 행다법입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차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수 교육을 통하여 변해가는 예법을 되새기고, 후학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보수교육 내내 강조했다. 최미리 전승교육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다례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규방다례를 익히 것은 차인들의 역할입니다. 1박 2일 동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규방다례를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수료식 김구환 대표자 선사



2024.11.15



2024.11.15

첫자리(인천)



2024.11.15

경남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부산지부, 충북지부, 아산지부, 충남지부 외



인천지부



서울제1지부



전남지부, 광주지부, 교토지부 외



서울제2지부



전북지부

2024년 규방다례 공개행사

보수교육에 참석한 협회 임원진은 1박 2일 동안 한 마음이 되어 협회 발전 및 차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규방다례에는 우리의 전통존중, 예절존중, 과학존중, 생활존중, 청결존중의 기본정신과 행다를 하는 사람이나 차를 대접받는 손님의 편안하고 원활한 동선(動線)까지 고려해 행다례가 주인이나 손님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이는 처음 차 생활 예절을 배우는 청소년들은 물론 미래 차인들의 차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규방다례는 모두 생활차 예절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상보 접는 법, 다관을 잡는 법, 찻잔을 들어 손님에게 전달하는 법, 다식을 대접하거나 다식 저를 다루는 방법 등 모규방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 예절로 손님을 맞이하여



이혜자 수석부회장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가시는 손님 뒤가 안보일 때까지 배웅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보존되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생활다례

가족, 친구 등 절친한 사이에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행다법



2024년도 정기전승 첫 번째 시연은 생활다례였다. 생활다례 나레이션은 김가영 이수자가 했으며, 출연진은 차영민, 강정자, 박숙희, 정경희, 연규남, 최정희, 조정미, 김태임, 이명숙 이수자와 이기분 전수장학생이 했다.

생활다례는 가족, 친구 등 절친한 사이에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행다법을 이야기 한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차와 물을 함께 넣어 우릴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차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 선인들은 돌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일반 수도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룻밤 정도 담아 두었다 쓰면 좋다.



나레이션 : 김가영 부회장



선비다례

조선시대 차를 즐기는 선비들이 모여서
우정과 시를 나누는 모습의 행다법



2024년도 정기전승 두 번째 시연은 선비다례였다. 선비다례 나레이션은 최미리 전승교육사가 진행했다. 출연진은 이막동, 강순란, 유미현, 하식 이수자와 조상철, 김구환 전문사범 오윤성 사범이 시연했다.

선비다례 행다법의 특징은 규수들이 하는 생활차 행다법과 달리 절도의 멋스러움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활차의 상차림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공수 등 손가짐의 차이가 있는 것도 눈여겨보면 좋다.

우리나라는 멋과 풍류를 중시했으며, 옛 선인들은 글을 읽을 때도 차를 마셨고, 무예를 닦을 때도 차를 마셨다.



나레이션 : 최미리 전승교육사



가루차 행다례

차를 갈아서 미세한 분말로 만든 것을 마시는
행다법



2024년도 정기전승 세 번째 시연은 가루차 행다례였다. 가루차 행다례 나레이션은 박경숙 이수자가 했다 출연진은 조영아, 이림, 최지원, 강희옥, 신은주, 이금숙, 류소영, 문차남, 최성미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시연했다.

가루차 행다례는 일반 차 재배와 달리, 채엽 15일 전부터 햇별차광 시설을 하여, 잎을 채취한 후, 갈아서 미세한 분말로 만든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즐겨 마셨던 우리 고유의 차다.



2024.11.16



2024.11.16



2024.11.16



나레이션 :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규방다례

규방다례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로 규방문화의 중심이었다.



2024.11.16

2024년도 정기전승 마지막 시연은 규방다례였다. 규방다례 나레이션은 최소연 보유자가 진행해 주었다. 출연진은 주인 박광옥 전승교육사, 돕는이 유현주 이수자, 손님 최영숙, 조화미, 김미숙 이수자가 시연했다.



나레이션 :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

규방다례는 형식 위주의 복잡한 다법에 비해, 매우 간결하면서도 전통을 중시하는 5가지 사상이 담겨져 있다. 전통존중, 예절존중, 과학존중, 생활존중, 청결존중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 차문화의 정수이다.

규방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 예절로 손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이다.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가시는 손님 뒤가 안보일 때까지 배웅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담겨져 있다. ☯



2024.11.16



2024.11.16



2024.11.16



2024.11.16

겨울날, 빛과 줄기는 차



한문교육학 박사
우리 협회 총복지부장
박숙희

겨울의 상징은 ‘눈’이다. 모든 것을 덮은 순백의 세상. 내리는 눈 속에서 삶을 반추해 보며 잘못된 것은 모두 덮어버리고 싶은 허망한 바람을 잠시나마 가져본다. 눈이 쌓여갈수록 눈으로 덮이는 모습들을 보며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기쁨에 설레게 된다.

눈이 내린다. 아무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새롭게 새겨지는 자국들.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듯한 기쁨을 가슴 가득 느껴보고 싶다.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누가 누가 새벽길 떠나갔나
외로운 산길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 발자국 소복소복
도련님 따라서 새벽길 갔나
길손 드문 산길에 구두 발자국
겨울 해 다 가도록 혼자 남았네

눈길의 자취를 서정적이며 생생한 감각으로 표현한 아동문학가 김영일(1914~1984) 님의 동시이다. 나운영 님이 곡을 붙여 누구나 즐겨 부르던 동요를 흥얼거린다. 노래 끝에 눈 그친 적막한 산길의 쓸쓸함이 다가온다. 눈은 멈추고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드러나는 모습들이 결코 지울 수 없는 내 삶의 아쉬움이기 때문인가.

동문선(東文選)에 실린 고려의 대표적인 문학가요 차인(茶人)인 이규보(1168~1241) 선생의 <초당에 거처하며 두보의 ‘새로 빌린 초가집’에 화답하다(草堂端居和子美新賃草屋韻)>는 인생을 달관한 여유가 담담하게 담긴 시이다.

杜門無客到	두문불출하니 찾아오는 손도 없어
煮茗與僧期	스님과 차 끓일 날 기약하네
荷耒且學圃	쟁기 메고 농사일 배워 볼까
歸田當有時	고향에 돌아갈 때가 마땅히 있으리니
貧甘老去早	가난도 달게 여길 때는 늙는 것도 빠르더니
閑厭日斜遲	한가함이 지겨우니 해조차 더디 지누나
漸欲成衰病	점차 늙어 쇠해지고 병이 드니
疎慵不啻茲	내 위낙 게으른 탓만은 아니로세

찾아오는 손님 없어 조용한 시간 구도에 잠긴 스님과 차 달여 마시기를 약속해 본다. 서로의 정의(情誼)와 청정(淸淨)한 자신의 속내를 차 속에 소담히 담아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겪으며 헛된 욕심에 힘겹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제는 모두 비우고 남은 삶을 담담히 여유 있게 살고자 시문을 벗하며 자연의 섭리에 감사해 본다.

그때 다가온 <늦봄 양서의 새로 빌린 초옥에 쓰다(暮春題瀼西新賃草屋)>라는 제목의 다섯 수의 시. 두보가 55세(767년) 3월 양서(瀼西)의 초당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처를 옮기고 초가집 벽에 쓴 시이다. 일대의 풍광을 노래하면서 ‘천지간 기델 곳이라곤 이 초가집 하나 뿐(乾坤一草亭)’이라고 자신의

비통한 삶을 한탄하기도 한 두보의 시는 크고 작은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기도 한다.

久嗟三峽客	오랜 삼협의 험난한 나그네 신세
再與暮春期	늦봄과 재회할 날 또다시 기약하네
百舌欲無語	때까치도 울지 않는데
繁花能幾時	흐드러진 꽃들은 몇 년째 피고 지는가
谷虛雲氣薄	텅 빈 골짜기에 얽은 구름
波亂日華遲	거센 물살 위 햇살조차 늘어지네
戰伐何由定	전란은 언제 끝나려나
哀傷不在茲	슬픔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자미(子美)는 중국 성당시대(盛唐時代)의 시인인 두보(杜甫 712~770)의 자(字)이다. 이백(李白)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이백을 시선(詩仙), 두보를 시성(詩聖)이라 일컫는다.

두보는 일찍이 학문에 뛰어났고 시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10여 년이나 급제하지 못해 곤궁한 생활을 해야 했다. 겨우 말단미 관직을 얻었으나 안녹산의 난으로 피난길로 접어들어 떠돌이로 생활하며 힘겨운 삶의 통탄을 주옥같은 시로 남겼다. 말년에 친구의 후원으로 초당에 거처를 마련하여 2년여 가족과 평안함을 누렸으나 안주하지 못하고 59세로 궁핍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시는 시대적 고난과 인간적 고통을 다루고 있으나 따뜻한 인간적 온기와 우수를 담고 있다.

두보의 시는 이규보에게 깊은 교감을 주었고 급기야 운을 따라 시를 지었다. 두보의 삶을 반추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은 찾아오는 이도 많고 만날 이도 많아 바쁜 삶에 지치기 일쑤였으나 나이가 드니 오가는 이가 자연이 줄어든다. 재주를 뽐내고 벼슬을 청하며 동분서주하던 시간을 되돌아본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롯이 나를 다듬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다. 한가하게 차손님을 청하여 유유자적한 삶의 여운을 나눌 뿐. 산사에 묻힌 뜻 맞는 스님과 맑디맑은 차를 마시며 차담을 청해 본다.

짧은 벼슬이나마 미련 없이 훌훌 털어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노래했던 도연명처럼 자연에 과묵히 남은 삶을 욕심 없이 조물주가 주신 것에 순응하며 유유자적 살고 싶다. 봄이면 밭 갈고, 가을이면 추수하는 자연의 순리 속에 조용히 남은 삶을 살고 싶다. 점점 늙어가는 몸과 한 군데 두 군데 늘어나는 아픈 곳조차 자연의 섭리인 것을.

모든 것을 비운 청정의 세계를 차를 매개로 담아낸 격조 높은 시이다. 이규보에게 있어서 선승은 자신의 일부이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지우(知友)이리라. 차는 고요 가운데 서로의 인간애를 돈독하게 하는 말 없는 선물이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시의 그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서 그가 처한 사회 현실까지도 용해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상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을 비우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 빈 나뭇가지를 보며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규보의 청정한 마음을 헤아려 본다. 벗과 마주 앉아 눈 내리는 창가에서 찻물 끓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겨울날 어느 음악이 이보다 아름다우랴. 따뜻한 찻잔을 들어본다. ☺

갱년기와 호르몬 치료

폐경 후에는
골밀도 측정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가천대 길병원 산부인과
전승주 교수

폐경기에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폐경이 된 것인지를 알고 싶다.’, ‘폐경이 언제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폐경이 언제 오는지를 검사로 알 수 있는가’가 단골 질문입니다.

의학적으로 폐경은 마지막 월경 시점으로 1년간 월경을 안 했으면 폐경으로 봅니다. 혈액검사로 호르몬의 농도를 통해 난소 나이를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으나 사람에 따라 월경 주기의 변동이 몇 달, 몇 년이 갈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정확히 언제 폐경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호르몬 변화의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언제 변화가 생길지 시작하는 지점도 모두 다릅니다. 가족력과 같은 선천적인 부분과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기저질환에 의한 항암, 방사선치료나 난소낭종 절제술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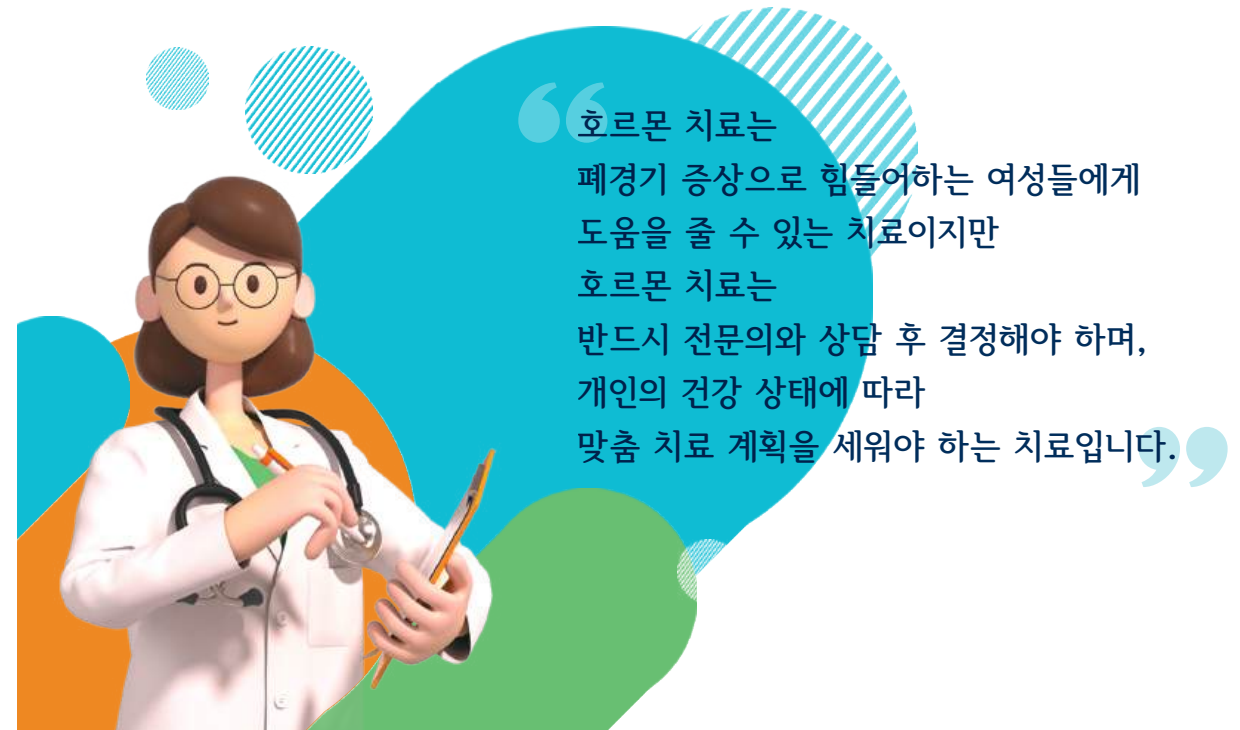
호르몬 변화에 의한 증상도 다양합니다.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며 초기의 증상과 중기, 후반기에 겪는 증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얼굴 홍조, 상기, 이상 발한, 현기증 등 혈관장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난소 기능 저하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시상하부와 온도조절 중추에 장애가 발생해 체온을 조절하는 폭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자극이 돼 열성홍조와 같은 증상이 쉽게 발현됩니다. 이는 폐경기 여성 거의 90%가 경험하는 증상으로, 그중 61%는 열성홍조를 경험합니다.

중기에는 요도, 방광, 질 위축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외음부 위축증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탄력성을 잃고 발생하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여성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경 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증가하는데, 증상이 나타났다면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기 후반기가 되면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폐경 후에는 골밀도를 측정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꼭 필요하고, 이를 놓쳐 부러질 때까지 두면 안 됩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내가 겪는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쿠퍼스 인덱스’와 같은 설문을 통해 합산 점수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폐경 여성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위한 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구 호르몬제, 피부흡수제, 주사제 등 많은 종류의 약이 쓰인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특정하게 우월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약을 누구에게 처방할 것인지는 환자의 신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이지만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치료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누구에게나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방암 환자,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원인이 불분명한 자궁출혈이 있을 때, 혈전색전증, 간기능 장애 등 권고하지 않는 환자도 있어 치료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제를 빨리 복용하기 시작하는 게 좋은지, 참고 참았다가 최대한 늦춰 시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십니다. 호르몬 치료는 금기되는 증상이 없는 환자에 한해 경구 투여는 여성의 나이가 60세 미만, 10년 미만의 증상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투약 시점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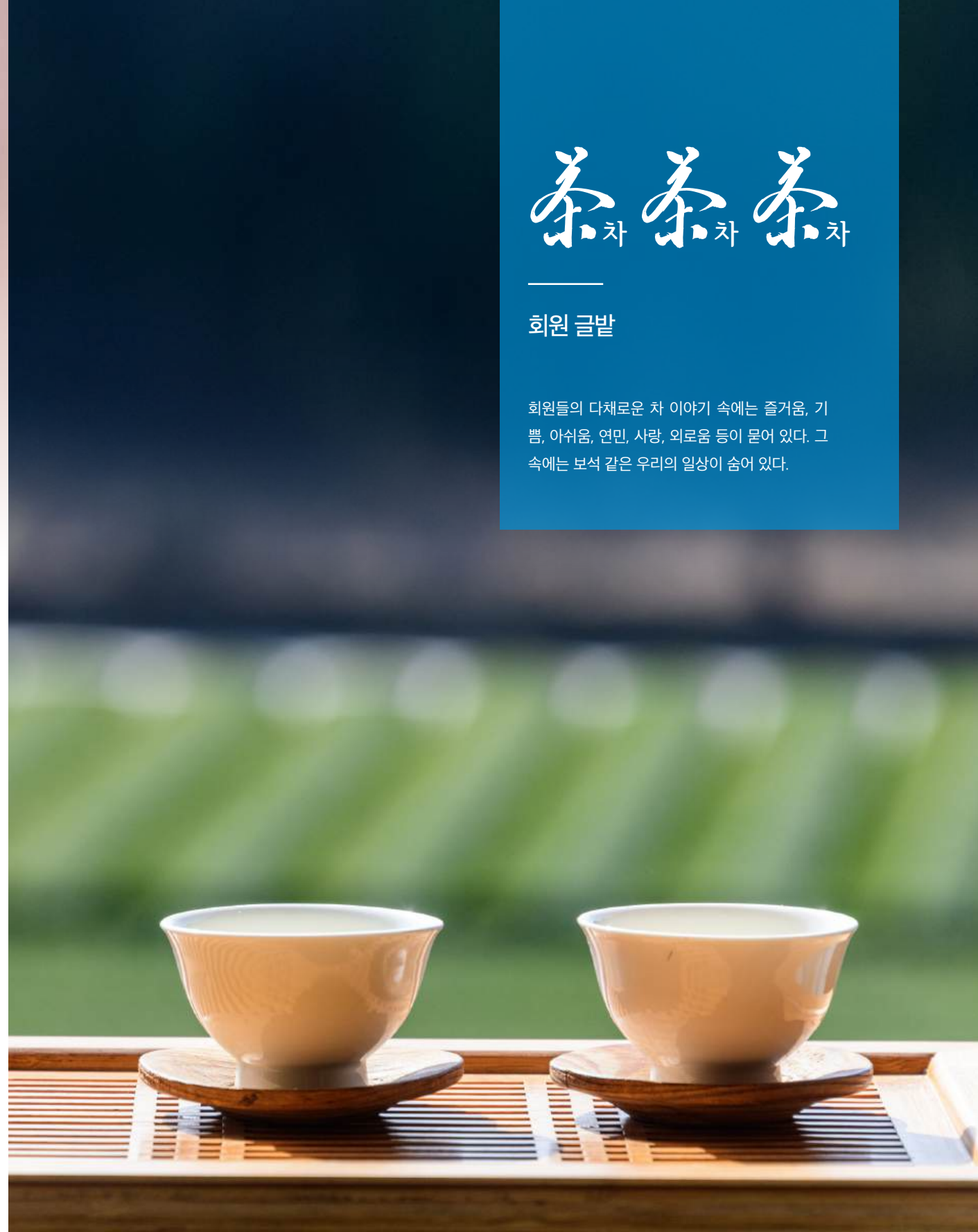
호르몬 치료를 하면 살이 쪼다고 생각해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살이 쪼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폐경 후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돼 오히려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료로는 아직까지 호르몬요법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은 없고 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든 약은 득과 실이 존재하는데, 치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이 크다면 시행할 수 있겠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이지만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치료입니다. 치료가 시작된 후에도 부작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㉞

茶차茶차茶차

회원 글밭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진동 진해현 관아 찻자리 동헌뜨락 들차회

글_경남지부 사범 김임순

마산 진동 진해현 관아는 조선시대 관청과 마방, 객사 등이 있었던 장소로 지금도 동헌과 객사 유지가 남아있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태양인 이제마'가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유서 깊은 장소에서 진동주민자치회가 주최한 들차회에 한국 차문화협회와 우리 차를 알리는 기회로 경남지부 회원들이 참여했다.

지부장님이 '동헌뜨락 들차회'를 제안하고 행사 기획과 진행을 하셨다. 들차 10자리, 대금 연주, 생활 다례 시연, 선비다례 시연을 진행하였는데, 회원들은 개성 있는 다양한 찻자리를 펼쳐 체험하는 분들

이 너무 멋있다고 감탄하셨다.

나는 남편(여민 이일파)의 작품으로 담백한 찻자리를 펼쳤다. 옆자리 사범반 반장님은 백련차 찻자리인데 선비님의 찻자리가 너무 풍성하고 다식도 다양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

다례 시연은 지부장님과 교육부장님의 해설이 곁들여 차를 잘 모르는 분들도 행다를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다. 사범님은 단아한 모습으로 선비님은 고아한 모습으로 다례 시연을 하였다.

인사 차 오신 도, 시의원분들과 면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행사 끝까지 찻자리 체험도 하시며 떠나지 않으셨다. 옛 진해현을 알리고 동헌 장소에 잘 어



우리는 행사라고 입을 모으셨다.

행사 내내 참석하신 지역 분들과 찻자리 사범님들을 찾아오신 지인분들이 좋은 행사라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진동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차 체험을 하며 다식도 맛나게 먹고 차에 관심을 보였다. 경남지부 이수자님과 지회장님, 사범님들도 오셔서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셨다.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펼친 자리라 더 좋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부장님 애써주신 덕분에 지역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준 것 같아 감사하며 찻자리 준비하고 펼치고 귀한 차 우려주신 사범님, 사범반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여러 가지 차향과 국화 향과 차꽃향이 어우러진 시월의 멋진 '동헌뜨락 들차회 한마당'이었다. ☺



차와 함께 하는 인생 후반기, 대학원 22기가 있어 더욱 힘이 난다



글_광주지부 대학원생 민선미

차(茶)는 내 속을 고요하게 정화하는 힘이 있다. 어느 순간 훗 찾아오는 갱년기의 불안이 내면의 빛을 갉아먹고 혼탁한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맑고 투명하며 고요하고 단아한 한 잔의 차(茶)가 마음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작된 차(茶)와의 인연이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에서 4학기를 거치고, 대학원에서 심도 있는 교육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예법을 배우는 중이다.

차(茶)에 관해서는 아직도 초등생인데 배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원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래서 “좀 더 뭔가를 알고 나서”라는 마음에 미루다가 지부장님의 차(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머뭇거리고 멈추기보다는 계속 걸으면서 배우라는 말씀에 힘입어 22기 한국차문화대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3월 9일 드디어 커다란 한복 가방을 들고 새벽 열차를 탔다. 설렘과 부담감 가득가득, 인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으로 향하였다. 개강식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관으로 들어섰을 때 봉사하러 오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범님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면이 전부 거울인 대기실에 들어갔다. 각 지부에

서 오신 사범님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웅기종기 모여 앉아 호기심 가득, 설렘 가득으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인사예절교육을 위해 각 지부의 고운 단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웃고름도 서로 매어 주고, 옷깃도 바로잡아 주는 스스럼없는 행동들이 이미 몸에 밴 큰 차인들이었다.

교육은 현장 중심교육과 동영상 강의로 구성되었고, 현장 교육의 강사는 주로 최소연 이사장님이였다. 이사장님의 입담은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예리한 눈매는 피해 갈 수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 인사예절을 배울 때는 수십 번의 엉덩방아를 찧고 어수룩한 자세로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반복을 통해서 단아하면서도 단정하게 정돈된 예쁜 몸 선을 만들 수 있었다.

새로운 인연, 또 다른 즐거움의 시작

차음식 경연 대회에서 22기 대학원생들의 작품은 돋보였고 많은 사범이 줄줄이 상을 타서 저력을 과시하였다. 특히 1박 2일의 차문화 기행은 대학원 과정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였다. 서로 머리를 맞대

고 정한 1박 2일(6/15~16) 코스는 경남 하동에 있는 차나무 시배지→야생차 박물관→도심다원 차밭→부춘다원→칠불사 순이었다. 가는 곳마다 웃음을 선사해 주는 경남지부 박은화 사범님, 유독 땀이 많아 힘들었을 것인데도 재치와 유머로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었고, 원종혜 반장님과 소유미 총무님은 사범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덕분에 너무도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찻자리를 준비해 주신 황동순 사범님, 썩떡을 2상자 보내주신 경남지부장님, 그 외 다양한 간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해주신 사범님들 덕분에 풍성하고 풍요로운 배부른 1박 2일이었다. 하룻밤은 22기 대학원생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로 간의 안부와 각 지부에서의 행사 등을 나누면서 전국이 하나의 채널로 연결되어 정보가 오가는 장이 되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굴레 속에서 이러한 인연과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 차(茶)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삶의 여정에 찾아든 차와의 인연

우리의 전통차와 그에 따른 예절교육과 차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즐거움과



재미도 있지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범이 되기 위해서는 실습을 통해 현장을 체험하고 발표도 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지도사범님이 진행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다도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달빛이 그린 다도’에 참여하여 대상자들에게 차를 마시는 예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실습을 하게 되었다. 반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차를 소개하자 어느덧 자세가 바뀌는 놀라운 효과가 있음에 차(茶) 문화의 8가지 인성 덕목은 설령 장애가 있을지라도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매개체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아직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 시작은 떨떠름한 부담감에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은은한 향기는 인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조금은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는 길을 찾았고 또 걸어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22기 대학원을 함께 했던 사범님들도 같은 여정에서 또 한 사람의 동반자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 ☺



군포시 문화살롱 체험 이야기

글_서울제1지부 전문사범 박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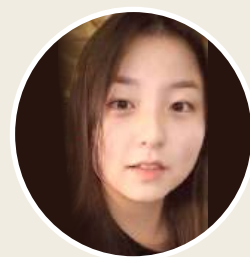
단풍이 곱게 물드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문화살롱에 “도란도란 차인설영의 차문화와 다도구 이야기”이란 제목으로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마흔다섯에 취미로 도자기를 배웠는데 크고 작고 올망졸망한 것들이 많은 다기 세트 만들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기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차를 배웠습니다. 차는 좋은 선후배와 귀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마음의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막상 다기를 많이 만들고 보니까 우리 시에는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판로를 찾기가 힘들기도 해서 일단은 차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문화살롱 모집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도자기를 빚고 차문화를 배우는 세월 동안 내가 느낀 아름다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미약하나마 내가 알고 있는 도자기 기법과 역사, 차의 효능과 예절 등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와 도자예술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 싶어서 5회차에 걸쳐서 차수업과 다도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회차마다 직접 도라지정과, 양갱, 햇곡 다식과 솔잎다식, 들깨어포다식, 참깨육포다식, 월병 등을

직접 만들고 동방미인, 백호은침, 봉황단충압시향, 직접 만든 작약꽃 차와 연잎차, 목련 꽃차, 유자, 쌍화차까지 시음하고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마지막 날은 꽃감과 대추를 이용한 다식을 직접 다 같이 만들어보았습니다. 살롱을 하면서 나와 인연이 된 10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 나마 진심으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랐고, 단 한 사람이라도 차를 마시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히 바라며, 5주 연속 다식 만들고 요리하느라 힘들었지만 내가 가진 재능과 차 나눔 할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살롱 제목도 정감있게 지어주시고 매 회차 상담도 해주신 서울지부 이기분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차와의 아름다운 인연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3학기 고유나



일년 여간의 방황을 끝으로 다시 서울 제1지부로 편집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처음 접한 다례는 저의 불안했던 십대의 끝자락과 현재까지도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가는 인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의 이름도 종류를 틀릴 때도 많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열정만 넘치는 질문에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마시는 경우나 이른 시간의 경우라면 어떠한 차도 접해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 몸에 맞는 농도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분야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무례하지 않게 소신을 전하는 것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제1지부에서 다양한 차를 접해볼 수 있는 수업이 다가올 수록 기대에 부풀어 주말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11월의 차의 분류 수업은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차를 한 자리에서 음용 할 수 있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정 넘치는 이기분 지부장님은 교육생들에게 차

를 접할 수 있게 13가지 이상의 차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배불리 차를 마실 수 있어서 행복 했습니다.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자 순으로 마시며, 이론과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싱그러운 서호용정은 아침의 허 끝에 다가와 활기를 가져와 주었습니다. 달달한 백호은침은 특유의 향기와 단맛이 기분을 개워 줬습니다. 철관음은 특유의 풀 비린내가 입안을 감싸며 깊은 산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홍차의 어머니로 불리는 정산소종과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했다던 동방미인은 달콤한 맛과 향기가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봐도봐도 보고 싶은 사람을 바라볼 때의 표정을 짓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환절기로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던 치친 몸에 첫 맛에 단 향기를 풍기던 생차와 마시고 난 뒤에 농후한 달콤함을 주는 보약같은 보이차는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다인이라면 어서 물을 끓여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라져가는 우리 병과 잡과다식 만들던 날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허유진



잠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날 다식에 대한 글을 읽다가 잡과다식이라는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증보산림경제』에서는 햇볕에 쪼여 말려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한다는 방검병(防儉餅)이라고 처음 소개되었다고 하고, 『음식법』 이후 문헌에서는 잡과다식에 대한 문헌 기록은 없다고 한다. 너무나 궁금해 잡과다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주재료가 꽃감, 대추, 밤, 꿀, 잣, 생강즙, 후추, 계피가 들어갔다. 당시에는 귀한 음식들이라 부회장님께 다식이 차와 어울릴까요? 한번 여쭙어보니,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응원을 해 주신다.

서울제2지부 회원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꽃감을 다지던 선생님들은 믹서기에 돌리면 안 되냐? 하시면서도 탕탕탕 열심히 다지신다. 문헌에서 곱게 다진다고 했으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말을 하면서도 나도 내심 이 다식은 칼질 숨쉴 자랑하는 다식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자주 해 먹기는 힘든 음식이었겠구나. 그래서 잊히는 음식이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마른 꽃감 구매가 쉽지 않았다고 하니, 종부 손현

숙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우리 집에 제사 지내고 많은데' 하신다. 다음엔 부탁드려야지.

잡과다식을 만든다고 손현숙 종부님은 호박전 반죽을 해와 회원들 입 안에 넣어주신다. 시골에서 농사지은 잘 익은 늙은 호박을 문찬남 회원이, 정순영 전문 사범은 손을 다쳐가며 호박죽을 끓여 오고, 부회장님 맛난 밥과 반찬은 유명 한정식이 부럽지 않았다. 곱게 다진 반죽을, 잣가루를 뿌리고 박아낸 모양에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마음에 모두가 열심히 했다. 다 만들어 놓고 나니 잡과다식은 담백하니 고소하였다. 둥글게 완을 빚어 잣가루를 굴리니 단정한 모양새가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모험을 계속해야겠다. 🍵



우리 모두 다 함께 도라지 편 정과를 만들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조상숙



한글날이 1928년에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 말문에 적힌 날짜에 근거해서 1945년부터는 10월 9일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을 환절기에 좋은 도라지에 꽃수를 놓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함께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지부 회원들은 한글날에 모여서 협회 행사에 차와 함께 귀빈 자리에 사용할 다식인 도라지 편 정과에 수를 예쁘게 놓기로 했다.

오늘 우리가 재료로 사용하는 도라지는 노랫말에도 나오듯이 도라지는 꽃도 예쁘지만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가 알기에 도라지는 기관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도 있지만, 기관지염이나 인후염에도 좋은 정보와 함께 허유진 총무님의 간단한 재료 소개와 도라지 편 정과에 수놓는 설명을 끝으로 수를 놓기 시작했다. 지부 회원들은 도라지 편 위에 허브를 올리고 수레국화, 마리골드, 매화꽃 등 우리나라 꽃들을 장식해서 예쁘게 수를 놓기 시작했다.

침향 차 효과를 확인시켜 주는 듯 또렷또렷한 눈망울로 집중해서 꽃수를 놓는 모습들이 장인의 눈빛과 손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느껴질 정도였다.

꽃수를 올려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번 다식은 그냥 다식이 아닌 도라지 편 정과에 올라간 꽃 향과 그리고 차향이 어우러져 피어났던 서울제2지부의 다식 합동 작품발표회라고.

인설차문화전에 쓰일 다식을 만들며 오늘도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차와 함께 도라지 편 정과가 맺어주는 좋은 인연으로 한글날의 의미를 새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우리나라 전통 차인 녹차와 함께 예쁘게 수 놓은 다식을 맛보며 기뻐할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



다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큰 꿈을 만들어 줍니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윤채영



국제학교 학생들의 다례수업은 질실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원서를 넣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을 꿈에 그리는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스펙에 걸맞는 상을 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



다. 부모 입장에서 단순히 대학합격만을 위한 상이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배려하고 또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배워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내 자식만이 아닌, 내 자식의 친구들 후배들에게 우리 차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준비는 다섯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참여한 인설차문화전에서 부상으로 받은 다기들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준비하여 우리 학생들의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돛자리를 펴고 방석과 다반과 다기들을 제자리에 놓으면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가 주는 오감의 자극은 오랜시간 의자에 앉아 장시간 집중하며 수업을 하는 피로에서 벗어나 힐링과 휴식을 갖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앉아 차를 우리며, 그 색과 향을 느끼며, 마시는 차의 힘은 긴장된 몸을 풀어주지요. 차예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소음은 평화로워지고, 입시에 지친 마음도 다시 일으켜주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기 정리를 하고 가는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앉아 차를 우리며,
그 색과 향을 느끼며, 마시는 차의 힘은
긴장된 몸을 풀어주지요.”

다섯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이 차문화의 여유로움을 엿어 보낼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음을 다례수업을 통해 확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덧 다가온 전국 인설차문화전!! 벌써 25주년이 되어 인천의 자랑거리가 되고, 훌륭한 품격있는 인성차문화전 대잔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긴장된 모습, 대회전 하나하나 순서를 다시금 새기고, 의복을 다듬고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 자체가 이미 정말 기특하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손님을 배려하고 나를 존중하는 생활다례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 품격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상이 필요해서 시작했던 시간이 다례를 반복하며 스스로도 감탄하는 힐링이 되어가는 체험을 하며 차문화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 가는, 타지에서 겪을 경험들을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움에 녹여내어 더욱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수상 호명으

로 큰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합니다. 우수상 수상자 중 한 명인 7세 남이는 극도의 산만함으로 인해 다례수업 진행이 어려웠었던 과정이 있었답니다. 쿼은 땀방울 흘리면서도 차분히 끝까지 다례를 마치는 훌륭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했던 학생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관심을 받게 되고, 가정에도 화목이란 순풍이 불게 되었다고 하니 뿌듯한 마음입니다. 다례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인듯 싶습니다.

1년 동안 쉽지 않았던 수업을 해준 3급 준 지도사범인 박고홍 군과 박호수 양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지면을 통해 보냅니다. ❷



2024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축제 30여 명 참여해 좋은 성과 올려

글_전남지부 지도사범 교육생 총무 정경미



전남지부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보성군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축제인 제12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에 참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 주변 차단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양일간에 펼쳐진 이번 행사는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티 퍼포먼스 경연대회, 대한민국 티 블렌딩대회, 세계차 품평대회, 티아트 페스티벌 경연대회 등으로 펼쳐졌는데 전남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7일에 열린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에는 박선희 1급 전문사범을 주축으로 2급 지도사범 교육생 10여 명이 대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빈틈없는 진행을

선보여 보성군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에는 5개 단체 40여 명의 학생들이 기량을 펼쳤는데 13명의 전남지부 어린이회원들이 참여해 최고상을 받은 백두산을 비롯해 전원이 수상했다. 또한, 이날 열린 대한민국 티 블렌딩대회, 세계차 품평대회에는 서난경 지부장이 품평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남지부의 위상을 드높였다.

8일에 열린 티 퍼포먼스 경연대회에는 예선전을 거친 5팀이 참가했는데, 전남지부에서는 두 팀이 참가해 “6대 다류의 품생품차 차차차” 연극으로 금상 (상금 일백오십만 원)을 “땅끝 들차회”가 은상 (상금 일백만 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7일에 열린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에는 박선희 1급 전문사범을 주축으로 2급 지도사범 교육생 10여 명이 대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빈틈없는 진행을 선보여 보성군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한편 “땅끝 들차회”는 이영미 1급 전문사범 교육생이 총감독을 맡아 한정주 나레이션, 최영금, 김귀임, 우연재, 선정화, 배은자 회원이 생활차를, 임성우, 김홍길, 송용필, 윤선웅 회원이 선비다례를 연출하는 콜라보 무대로 이루어졌다. 위인숙 1급 전문사범의 가야금 연주를 시작으로 들차회가 펼쳐졌는데 관객들과 다담을 나누는 시

간에는 김홍길 2급 지도사범 교육생의 색소폰 연주가 곁들여져 관광객들의 호응이 드높았다. 또 8일에 열린 티아트 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는 1급 전문사범 나혜영, 박숙희 조와 2급 지도사범 교육생 류선희 회원이 자녀와 한조를 이루어 출전해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김수진(2급 지도사범 교육생)은 특별상을 받았다. ●



6대 다류의 품생품차 차차차 티 퍼포먼스 경연 대회, 대상 수상



글_전남지부 2급 사범교육생 전미란

지난 9월 7일 보성군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2회 보성 세계차 박람회(국가 중요 농업 유산 축제)에 (사)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 선,후배들이 함께 “6대 다류의 품생품차 차차차” 연극으로 티 퍼포먼스 경연 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연극은 이야기 할머니(이정희 이사님)의 차 이야기와 강 시내 2급 사범교육생의 아들 김서준과 백두산, 조수진 어린이 회원들이 차나무 들고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6대 다류를 연기한 회원들이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며 다양한 제다법을 자랑하고 서로 잘났다고 뽐내면서 티 퍼포먼스 경연의 재미를 더해갔다.

처음 준비 과정은 막연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의 색깔들을 찾아 표현하게 되었고, 서로 배려해가며 연극의 완성도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욱 발전되어 갔다. 회원들이 연기하는 6대 다류는 같은 차나무의 잎에서 만들어졌지만, 성격도, 색깔도, 제다법도 달랐다.

관객들은 우리의 티 퍼포먼스를 보며 하나가 되었고 심사 결과 대상을 수상했다. 황차를 연기하면서 노란색 옷을 사고 민황을 표현하려고 광목으로 얼

굴을 감싸면서 연기를 했다. 덕분에 결과가 좋은 것 같아 욕심이 생긴다.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도전해 보고 싶어졌다.

특히 이번 연극을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관객의 후담이 있어 우리를 더욱 신나게 했으며 가슴이 뿌듯했다. 아이디어를 주신 서난경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녹차(김경자 이사님), 홍차(정경미 총무), 백차(배지연 준사범), 청차(신금호), 흑차(정승일) 등 함께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티 퍼포먼스 팀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차향처럼 은은하고 향기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



사범회 가을 여행

글_충북지부 전문사범 허윤숙



사범회 가을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처음 도착한 곳은 경암동 철길마을이다. 1970, 80년대의 풍경을 재현해 철길 양옆으로 뽑기, 달고나 등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있어 여행객들의 시선을 모으는 곳이다. 우리는 철길에서 사진도 찍고 풍선 터트리기도 하며 추억의 거리에서 또 추억을 만들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원하는 분들만 들어가고 몇몇 분들은 역사박물관 주위를 둘러보았다. 옛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는데 외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내부만 멋지게 바꾸어 카페로 사용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바닷길로 접어들었다. 탁 트이고 쪽 뺨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지날 때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만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무너도 선유도를 지나 장차도에 도착하니 호떡이 유명한 곳이란다. 모두 치즈 호떡을 주문하고 전망 좋은 2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맛있게 먹고 난 후 바다를 가로지른 스카이워크를 건너 선유도해수욕장으로 갔다. 썰물 때라 물이 많이 빠져있어 해변으로 내려가 걸을 수 있었다.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우리는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멋진 포즈를 바꿔가며 연신 사진을 찍었다. 해변의 모래는 고운 모래보다 더 고운 진흙에 가까운 모래였다. 지부장님과 사범 몇 분은 신발을 벗고 걸었는데 모래를 밟을 때 감촉이 너무 좋다고 하였다. 해변을 더 걷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왔는데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다. 차로 맺은 인연의 기쁨 속에 정담과 추억을 가득 담은 사범회 가을 여행.

단풍이 아름다웠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랑이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내년엔 사범회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 ☺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

글_충북지부 이주현



코끝에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이 감성을 자극하는 가을 속에 우리 충북지부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충북도민과 관광객들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2024 도민화합 무심천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을 개최한 이날, 청주의 자연과 전통 차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들차회로 문암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 회원들이 마련한 가을 축제의 장이며 올해로 23회가 되는 차예절 경연대회 자리이기도 하다.

넓고 쾌적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청주시 소풍 명소인 문암생태공원을 찾은 가족들은 여기저기 돛자리를 펴고 사진 놀이를 하며 가을을 즐겼다.

오늘의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을 위한 대회사를 마치고 차향과 어우러진 다도 시연은 대전, 세종, 충북지역의 다(茶)인들과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공원을 찾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했다. 충북지부 박숙희 지부장은 그동안 청주시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초·중등학교와 일반인을 위한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과 올바른 차문화를 알리기 위한 많은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는 품격을 지키며,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차와 예를 접한 가을 들차회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이번 찾자리를 가지기 위해 예쁜 다식을 며칠 동안 손수 만든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이곳에서 차 한잔과 함께 잠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가을이 주는 정취에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지부장님의 축사에 이어 청량한 파란색을 풀어놓은 것 같은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흰 구름 아래로 알록달록 단풍이 드리우고 푸른 잔디 위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차예절경연대회 참가자들의 찾자리가 펼쳐졌다.



연인들이 찾아들고 아이들은 금세 적응해서 여기저기서 차를 마시며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며 차 맛과 정성 어린 다식을 음미하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라며 감탄 일색이다. 이곳저곳에서 “차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아득바득하는 세상에서 이런 따뜻한 찾자리라니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사람 사는 생활 태도마저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요즘, 사회가 빠르게 변하여 빨리빨리 문화에 길든 우리 젊은이들, 지금의 현실이 때론 아쉽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먼저고 가족 간에 대화도 사라지고 사회도 경쟁 사회로만 치닫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늘어난다는 뉴스다. 소통이 줄어들고 혼자 사는 독립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모두가 외롭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 요즘이다. 차를 알고 차 한잔 우려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찾자리에 함께한 도민들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

차 나눔은 차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의 자세라고 본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나눔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는 오랫동안 차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좋은 변화가 많았다. 차 공부를 하고 차를 우려 마시며 차의 정신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물질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다. 예의범절을 공부하고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일 등 다도는 종합 예술이다.

오랜 시간 뜨거운 가을별 아래 펼쳐진 차예절 경

연대회에서 여러 심사위원들과 심사를 했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예술성, 실용성, 안전성, 소통의 미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오늘의 MVP는 곱게 차려입은 한복과 독특한 창의성으로 찾자리를 배경으로 예술성과 소통의 미 등 모든 기준에서 거의 완벽했고 항상 솔선수범하며 배려와 배움에 열정을 다하셨던 분이 차지했다. 우리의 전통과 차문화 확산을 위해 수고한 수상자들과 지부장님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2024년 인천 무형유산대 축제 가루차 행다례 시연

서울제1지부 최점순 이사

‘2024년 인천 무형유산대축제’가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월미도 갈매기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형유산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국가·인천시 지정 무형유산 24개 팀이 참여했다. (사)규방다례보존회는 가루차 시연으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가루차 시연은 서울제1지부소속의 회원들로 해설에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시연에는 신연서 이사, 최점순이사, 최진숙 이사, 변명선 이사가 했다.

(사)인천시무형유산총연합회 부이사장인 능화님은 “인천의 무형유산들이 마음을 모아 시민과 함께 하는 대축제를 마련했다.”라며 “인천시민들이 월미도에서 예능장들의 멋진 무대공연과 기능장들의 아름다운 작품전시를 가족과 함께 감상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국진 총연합회 이사장은 “2024년 인천 무형유산 대축제를 통해 국제도시 인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에 뿌리를 둔 멋진 전통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춧돌 하나 놓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2022~2023년 행사보다 더 넓은 광장에서 공연하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❶



지하철 안국역 북촌문화센터에서 지난 9월부터 문화강좌 - 규방다례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차문화협회와 무형유산 규방다례와 전통에 관해 이야기도 하고, 녹차와 여러 가지 차들을 소개하고, 차를 우리는 다구도 소개하고, 생활다례를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일찍 도착하여 예쁜 한옥의 방들을 지나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쉼터라고 적힌 작은 방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입 꼬리가 올라가며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기라 수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소수의 인원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북촌문화센터에 와서 체험해보려 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차 체험도 했다.

오신 손님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과 규방다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차에 관해 이야기하고, 준비해 간 다식도 생활다례 행다를 배워보고, 자신이 우린 차를 함께 마시기도 했다. 손님들이 ‘맛있다’,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차문화를 보급한다는 데 자긍심이 느껴지는 수업이었다. ❷



북촌문화센터 문화강좌 규방다례 수업

서울제2지부 류소영 이사





국보급 전통 한옥 '가천교육관' 준공

이길여 가천대 총장 정원에 설립

우리 협회 명예이사장님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설립한 가천문화재단이 국보급 가치를 지닌 전통한옥 '가천교육관'을 건축, 11월 21일 오후 3시 준공식을 가졌다. '가천교육관'은 가천문화재단이 전통 예절교육과 차(茶)문화 전파, 전통의학 전시 등을 위해 건립한 전통 한옥 건물이다.

가천문화재단을 설립한 이길여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은 평소 우리나라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천문화재단은 민족의 고유한 예절과 차문화, 전통 의학을 교육·전시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설립자의 뜻을 담아 교육관 자체가 또 하나의 '전통 계승'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을 추진했다. 한옥 건축에는 2년이 넘는 시간이 들었다. 가천문화재단은 가천교육관을 인천 유일의 국보(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문화유산 소장처인 '가천박물관'과 함께 또 하나의 국보급 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인설차문화전 동영상 심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

지난 10월 10일 목요일 협회 교육장에서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 강정자, 김가영, 차영민, 박광옥, 박숙희 부회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장, 최진숙, 문차남, 조영아 이사 등이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동영상 심의를 했다.

이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번 오프라인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전주 곤지중학교에서 전국 청소년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전국에서 참가한 80여 명 4개 조로 나눠 진행

2024년 제27회 전국 청소년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가 지난 10월 12일 전주 곤지중학교 강당 3층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전통생활예절보존회가 주최하고,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설예원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성군, 하동군,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차문화협회가 후원한 이번 차예절경연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로 진행되었다. 이

번 경연대회는 생활다례를 통해 옷차림, 기본예절, 절하기, 행다법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전국에서 참가한 80여 명의 청소년은 진지하게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개회식에서 대회를 주관한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이립 지부장은 “전국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참가한 청소년 및 학부모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국 청소년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전주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는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다동학교를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예절을 몸과 마음에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21일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핵심 가치 8대 덕목인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방법으로 차예절 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문제 해결을 방안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찾상머리 교육’의 효과라고 믿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님 이하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님의 축사를 대독한 김가영 부회장은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다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됩니다. 지방에서 개최하는 차



예절 경연대회상으로는 최초의 일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예가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인성교육에 꼭 필요한 필수요소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차문화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차인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가 예의 본고장으로서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차예절 경연대회는 질서 정연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 🍵

홍진벽산(紅塵壁山) 내성불구(內省不疚)

歲寒圖를 품어낸 제주 서귀포, 秋史는 정치적 핍박으로 流配의 삶을 산다, 추운 겨울 寒氣 서린 소나무, 추사의 고독함 삶, 자신을 성찰하는 기구한 人生旅程이었다.

이제 추운 겨울 서귀포는 寒蘭의 계절이다. 추위야 꽃을 피우는 한란, 추사는 蘭草를 칠 때 “不欺心”으로 고결한 인품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불기심이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기심 세 글자만 지켜도 인생을 살아가며 처신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秋史, 歲寒圖와 마찬가지로 蘭의 잎을 칠 때 물게 그리고 빠르게 길게 표현하는 방식의 붓의 속도만으로 화법을 구사하였다. 빠른 속도로 친 蘭, 칼칼한 먹 맛은 드러내지 않는 君子의 德을 그렸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는 진한 먹으로 쳤다.

焦墨法으로 그려진 먹색의 짙음과 얇음으로 불후의 명작 國寶 “歲寒圖”와 “不二禪蘭” 圖가 태어난다. 中庸의 정신을 그려낸 추사의 蘭草, 그는 혼자 있을 때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면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내성불구(內省不疚). 혼자 있을 때 더욱 자신을 성찰하여 마음에 어떤 흠이 없게 하라는 말이다. 올곧은 情神.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파하고 싶다.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입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경(錦暎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暎寶鼎의 禪 사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수원지부 · 아산지부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강원지부

콜롬비아 메데진시 대표단 춘천시 방문

전통 차문화 체험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에 큰 관심



지부장 김미숙

춘천시는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콜롬비아 메데진시 관계자가 춘천시를 방문하여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천년고찰 청평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강원지부는 지부장님을 비롯해 회원들이, 다식을 준비하고, 연꽃차, 가루차, 냉녹차 등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 메르진시 대표단과 춘천시 국제부 관계자 등 20여 명은 전통 사찰과 전통차 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차와 다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에 빠져 사진 촬영도 함께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_사범 수료생 김복순



경남지부

합성초등학교 인성 차예절 수업

5, 6학년 대상 인성 함양 교육



지부장 황미경

10월 중순, 제69기 박상제 선생님의 주선으로 마산 합성초등학교에서 5, 6학년 대상으로 <인성 차예절> 수업을 하였다. '인성 8 덕목'을 접목한 인성 함양 교육을 했다.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차를 마시고 대접하는 경험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을 익히며, 건강한 환경과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차를 통한 세대 간 소통으로 가족, 친구, 이웃 간의 화합을 이루게 하고, 나눔과 배려, 협동, 감사 등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성 차예절> 수업은 아동들에게 바른 기본예절 습관을 생활화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며 감사의 인사도 하셨다.

아동들은 몸과 마음, 정신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우리 차를 마시겠다고 다짐도 하였다.

3조가 동시에 2시간씩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지부에서 미리 강사 교육을 하였고, 다례 수업 시 PPT를 활용하였으며 강사 간 소통과 다기·다구 준비하고 이동, 사용 후 지부에서 정리까지 완료하였다.

경남지부 아동 대상 다례교육이 지속되니 교육 강사들의 소양과 교육 스킬이 향상되는 것 같다. 늘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지부장님과 '인성 차예절 수업'에 함께 하신 사범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글_전문사범 주영희



창원 대산중학교 인성예절교육 학생들의 의젓한 모습에 보람

매년 창원 대산중학교에서 인성예절교육을 한다. 생활예절(한복, 배례, 방석), 인성 8 덕목, 생활차행다와 예절,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등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로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차와 예절 교육이라 또래 집단의 융화에도 좋다고 덧붙



이셨다. 한복으로 단정히 하고 예절을 배우고 행다 시간에는 진지하게 “차 드시지요” 하는 모습이 교육 전의 발랄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몇 시간의 차예절교육으로도 의젓한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절로 간다.

글_전문사범 정재윤

김해 이작초등학교 인성예절교육 방학 중에도 인성교육 진행

‘슬기롭고 참된 어린이’라는 교훈으로 낙동강 줄기에 자리한 이작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가 피어나는 작은 학교이다. 몇 년 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인 ‘인성차’과정을 방과 후 과정으로 교육하였는데, 효과가 좋아 해마다 방학 중 계속하게 되었다. 이곳 아이들이 순수해 성격도 밝고 담당 선생님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 교육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녹차와 차도구에 대한 설명에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고 차 내기 시간에는 조심하는 모습이 이뻐서 교육하는 강사도 즐거워진다. 교육부장님과 사범부장님 수업하는 데 1급 사범님은 실습으로 나는 도우미로 교육에 함께 했다.

글_전문사범 김둘자



유치원 다례교육 차 예절과 국화차 마시기

시월 ‘마산 국화축제’를 즈음하여 마산 현동 숲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차예절을 가르치고 국화차를 직접 우려 마시는 체험 다례 교실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차예절 배우기와 차도구 알아보기, 친구와 국화차 마시기, 찻자리 마무리로 5세 반 아이들도 푹푹찰찰한 눈과 작은 손으로 따라 하는 것이 너무 예뻐다. 피피티 영상을 활용하고 아동들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교육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했다. 이번 다례 교실에 함께하면서 아이들 다례 지도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 지부장님, 교육부장님, 사범님께 감사드립니다.

글_전문사범 김세란



교 토 지 부

일본 시가현 본부부인회 요청 찾자리 마련

교토지부 한국 전통차 가을 차회 개최

교토지부는 지난 11월 3일, 시가현 본부부인회 요청으로 '한국 전통차 가을 차회'를 시가현 오오즈 시내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재일한국교포 대표단체인 민단에서도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가현 본부부인회 부회장이기도 한 교토지부 정문자 씨의 노력으로 '한국 전통차 가을 차회'가 실현되었다.

일본에 사는 교포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한국의 차문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일본의 차문화가 한국에서 넘어온 문화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재일한국교포 중에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저 혼란스러워하는 때도 있다. 앞으로 한국차문화 협회가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차문화를 일본에 널리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부장 조화미



한국과 인연이 깊은 햇타산송에이지에서 찾자리 개최

한국 증정품인 병풍으로 찾자리 풍성

교토지부는 지난 11월 19, 20일 양일간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의 명찰인 햇타산송에이지 (法多山尊永寺) 에서 3년째 차 이벤트 <오차노코사이사이>에 한국의 찾자리를 개최했다. 햇타산송에이지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고, 한국과의 교류 속에서 증정한 아름다운 병풍을 찾자리에 사용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찾자리가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군의 공습에서 피할 곳이 없었던 교포들을 이곳 햇타산송에이지가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런 인연이 있어 손님들은 병풍 이야기와 한국 차문화를 소재로 아름다운 찾자리를 꾸몄다.

전북지부 일본에서 규방다례 시연

일본 차인들 규방다례 시연팀에 찬사

지난 10월 26일, 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 이림지부장님이 '2024년 교토·오사카지역 한일문화교류'에 참석하여 찾자리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북지부 회원들의 행사 운영과 찾자리 스타일, 세련된 예절 등 모든 것이 차인으로서 본받을 만했다.

전북지부의 찾자리를 통해 '백문이 일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손수 보여주는 아름다운 찾자리였



다. 우리 교토지부 회원들은 전북지부 찾자리를 보면서 더없이 소중한 경험과 공부가 되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2024년도 대경 차인 단체 임원 찾자리 마련 회원이 운영하는 도함요에서 진행

대구경북제1지부는 2024년도 대구·경북 차인 단체 협의회 회의 찾자리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이 운영하는 도자기 전시장에서 열렸다. 도자기 전시장 주변에는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더욱 운치가 있었다.

대구의 사단법인 차인 단체 이사, 사무국장이 참석한 자리였다.

찾자리는 도함요 주인인 최수연 회원과 지부 이사 사범 3명이 준비하고 봉사해 주었다.

참석하신 모든 분과 회의를 마치고 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깜짝 이벤트로 펜 플루트 연주와 하모니카 연주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다.



찾자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답다. 모든 분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4년 협의회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함께 협조해 주신 대경차인단체 임원님들 감사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대구경북제1지부와 전국 차인과 협회를 사랑합니다.



지부장 박경숙

사범회 가을 여행을 떠나다 찾자리를 통해 하나가 되다

대구경북제1지부는 지난 10월 14일 제2사범회와 함께 가을 여행을 떠났다. 매년 한 번씩 모든 것을 잊고 소풍을 떠난다. 올해도 마음을 모아 버스 1대를 전세를 내 다식과 과일을 준비하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다구를 준비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구에서 출발해서 청송 백일홍 꽃밭에 잠깐 내려서 꽃구경하며 힐링 시간을 가졌다.

삼삼오오 사진을 찍으며 소녀가 되었다. 청송 다음으로 영덕 바닷가에 갔고, 싱싱한 회 메뉴로 점심을 먹고 보슬보슬 기분 좋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야외 찾자리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차가 주는 기쁨은 우리 차인들의 행복이다. 다음 코스는 불영사인데 모두 차에 취해서 코스를 멈추고 차 마시는 시간을 더 늘렸다. 후배들이 찬조해주고, 가을을 대표하는 홍시도 2박스 준비해와 찾자리는 더욱 풍성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아쉽지만, 가루차 한 잔으로 찾자리를 정리했다. 루

루 라라 웃음꽃이 피는 대구경북제1지부는 모두의 사랑을 싣고 힘차게 달렸다.



서울 제 1 지 부

무형유산 규방다례 가루차 시연

인천 무형유산대축제에 참가



지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는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 강화도에서 열린 인천 무형유산대축제에 참가하여 인천 시민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선보이는 기회를 얻었다.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인천무형유산대축제는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개막식에서 부평 두레놀이와 꽃맞이 굿의 화려한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황해도평산소놀이굿과 강화 외포리 꽃창굿,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갑비고차 농악 등 다양한 전통 공연이 이어지면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시연한 규방다례 가루차 시연은 조선 시대의 전통 다례를 현대에 알리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참가자들에게 다례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다.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과 전통문화를 나누고, 서로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정말 감사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되길 바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 이사 최점순



서울 제 2 지 부

한복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2024,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지원 사업



지부장 박광옥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동작구 내 3개교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지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대상 학교인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총 8회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한복문화교육은 초등학교생들에게 우리나라 고유 의복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 바르게 알고 한복을 올바르게 입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첫 시간에는 우리 한복의 역사와 특징, 시대별 변천사와 다양한 문양에 대한 의미, 생애 단계별 입는 옷, 오방색에 담긴 의미 등 한복 바르게 입는 방법에 대하여, 둘째 시간에는 동작문화원에서 준비한 한복을 어린이들이 직접 입고 바른 공수 자세로 여러 가지 인사법을 배우며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한복에 대한 기대감과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는 한복을 입고, 한복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이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린이는 “어른이 되면 돈을 벌면 꼭 제 돈으로 한복을 사 입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즐거워했다.

한복을 입고 교실에 첫발을 들여놓던 순간 어린이들은 “와~아, 한복이다. 선생님 너무 예뻐요”라며 다가와서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한복 덕분에 어린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보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아름다운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명절날, 혼례식 등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으며, 요즘은 명절에도 한복을 입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체험교육으로 한복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며 일상생활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불편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편리함을 찾아 편하게 많이 입을 수 있는 한복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이사 문차남



서울제2지부 개강식과 녹차 품평 특강

품평을 통해 차의 세계를 엿보다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여의도 교육장에서 서울 제2지부 개강식과 녹차 품평 특강이 있었다.

박광옥 지부장님과 이사, 전문사범, 지도사범, 사범교육생 등 많은 회원이 함께하는 반가운 개강식에서 녹차 품평 특강을 진행하였다.

차를 심평할 때는 각각의 차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숙련된 시각(視覺), 후각(嗅覺), 미각(味覺), 촉각(觸覺)에 의한 판별 능력과 차의 외형(外形), 탕색(湯色), 향기(香氣), 맛(味), 엽저(葉底) 등 찾아낼 품질을 심평한다. 중국에서는 차의 품질 심사평가를 심평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품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지금부터 품평이란 용어로 사용하려고 한다.

품평 준비는 각각 녹차 3.0g, 100℃ 끓인 물 150mL, 우리는 시간은 5분, 품평배, 품평완, 차시, 차보기, 찻잔, 퇴수기, 모래시계 등을 준비했다. 품평 방법은 국제적인 품평 방법에 따라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품평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외적 요소는 외형보기(찻잎의 색, 완전한 정도, 이물질의 유무, 부서진 정도)이고 내적 요소는 탕색 보기, 향기 맡기, 맛보기, 우린 엽저 보기이다.

차의 외형보기부터, 탕색, 향기, 맛, 우린 엽저 보기 등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품평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들이 느꼈던 탕색이나, 향기, 맛을 섬

세하게 주저하지 않고 표현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마셔보는 차도 있다고 하면서 차의 특징들을 말하고, 차품평 보고서에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모습도 보았고, “진하게 우려서 차가 쓰다, 떫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안에 단맛이 남아있어”, “신선하고 상쾌한 맛이 좋아”, “차를 우리고 난 엽저도 예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알아가며 좋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품평하고 남은 녹차에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도 마셔보았는데 색다른 경험이라며 맛있다고 좋아했다. 회원들의 감각을 활짝 열어주었던 날이었다. 감각에 집중했던 날이기도 했다.

품평 특강 기회를 주신 지부장님과 적극적으로 품평에 참여했던 회원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글_전문사범 정순영



수원 지부

수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차나눔 실천 행사

수원지부 내국인과 외국인 상대 다례 체험



지부장 정경희

수원지부는 가을을 맞이하여 수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효(孝) 사랑과 예(禮), 차(茶) 나누는 실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옥으로 되어있는 공연장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효(孝)의 도시 수원과 잘 어울리는 행사로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했다.

수원지부는 그동안 차예절 교육을 받은 유치부,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경희 수원지부장은 수원시민과 관광객에게 예와 정성을 다하여 바르게 인사하고, 차를 드리고 마시는 예절을 소개했다.

참가한 학생들은 외국어가 가능해 우리의 문화를 한껏 자랑했다. 체험 시간에는 한복을 입고 스스로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모습이 예쁘고 자랑스러웠다.

어느 시민께서는 한복을 입고 방석에 앉아서 두 손으로 차를 내는 모습이 요즘은 자주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이 두 손으로 차를 내면, 두 손으로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은 이런 모습과 경험은 처음이라며 한국의 다례 문화는 아름답다고 말씀해주셨다. 찻자리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차를 나누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글_지부장 정경희



아 산 지 부

다도와 만나는 인문학

아산지부 10회 걸쳐 강연 진행

병천 은빛노인복지관에서 '다도와 만나는 인문학' 강좌를 10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1회를 시작했다. 은빛노인복지관 연령층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20명 중 3명은 남성이고 나머지 17명은 여성이었다. 어르신 중에는 서울에서 차공부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차가 무엇인지 녹차 한 잔 마셔 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셨다.

이번 교육은 차를 통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차를 마시며 내 삶을 돌아보기, 차 한잔의 의미, 나만의 마음 다스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향긋한 일상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등으로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 문화원 상대 홍차 특강

다양한 홍차를 맛보고 비교하는 시간 가져

아산지부 교육장에서 문화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김태임 지부장의 '홍차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홍차의 역사, 나만의 홍차 고르기, 맛있는 홍차 우리는 방법, 기문 홍차, 우바 홍차, 다르질링 등에 대해서 서로 맛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암 민속마을 짚풀 문화제 참가

우리의 차문화와 관·계례 주관

제23회 아산 외암 민속마을 짚풀 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다.

아산지부는 이번 외암 민속마을 짚풀 문화제에 차시음회와 관·계례 행사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산지부 교육생과 사범들은 3일간 열린 차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소개했다. 외암 민속마을은 우리의 전통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고 있다.



호한정에서 다식 수업 진행 우리의 전통 음식 계승 일환

아산지부는 화창한 가을에 호한정에서 다식 수업을 진행했다. 다식 수업을 통해 오방색의 의미, 다식의 유래, 다식의 종류, 전통 음식의 소중함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이유 등에 대해서 진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다식을 만들면서 교육생들은 신기해했고, 우리 음식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다. 직접 만든 송화 다식을 입 안에 넣고 맛을 보면서 송화가루의 향기가 참으로 은은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시간엔 약과를 하기로 정했다. 교육생들은 그날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외암마을 다례체험 교실 열어 아산지부 차문화 교육에 앞장

아산지부는 외암마을과 연계하여 다례체험 교실을 열고 있다. 다례체험은 외암리 체험교실에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 오면 돌담 넘어 대청마루에서 선비다례와 우리의 차문화를



알려주고, 녹차 한 잔 우려 마시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일반인, 회사직원, 교사,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체험을 신청하고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차문화를 알리고, 차를 마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산지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힐링 아카데미를 통해 차의 세계 소개 여성단체 임원 힐링의 시간 가져

아산지부는 아산시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차를 통한 힐링 프로그램 특강을 실시했다.

힐링 프로그램으로는 6대 다류를 설명하고, 차 품평을 하였다.

또한 홍차의 차 문화사, 중국차 바로 알고 마시기,

차의 기원과 역사 등을 소개했다. 이번 아산시 여성단체 임원 차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차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지부

강화도로 가을 나들이를 가다

최지원 지부장과 지도사범과 다담 시간 가져



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 지도사범 교육 두 번째 날. 갑작스레 강화도 나들이가 정해졌다. 10월 행사가 많아서 늦추게 되면 못 갈 수도 있으니 바로 날짜를 확정해 실행했다. 최지원 지부장님 차로 69기 김혜숙 회원, 한수경 회원, 70기 이미경 회원과 함께 67기 이혜숙 회원댁에 도착했다.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4학기제 수업받으러 오시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도착해서 식당에서 청국장을 먹고, 산책길에 개울 물고기들을 보며 청정한 자연 환경에 감탄하기도 했다.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따서 바로 먹는 것이 생소했지만 신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직접 탄 사과와 이혜숙 회원이 준비해주신 양갱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다담 시간을 가졌다. 주위의 산과 들관을 보며 함께 하

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집에 갈 때 이혜숙 회원이 챙겨주신 고추와 가지로 저녁까지 풍성한 하루가 되었다. 지도사범 교육생 모두가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지만, 종종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정을 쌓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

글_전문사범 이윤희



전남지부

해남 대흥사 차문화 체험관 다암(茶庵) 현판식

서난경 지부장 등 규방다례 보급에 앞장



지부장 서난경

해남 대흥사 차문화 체험관 다암(茶庵) 현판식이 지난 10월 19일 100여 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차문화 체험관 다암은 대흥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참여자들과 해남 관내 학생들에게 다례교육을 전파하고 초의차 제다법을 전승 발전시키며 초의차보존회 회원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서난경 지부장은 규방다례의 우수성을 참석자들에게 알리고 무형유산이 된 규방다례를 초의차보존회 회원들이 전수 함으로써 초의차의 본고장인 해남에 차문화를 꽃피우는데 앞장서자며 화로 등 규방다례에 필요한 다기를 기증했다.

한편 다암 개관에 앞서 초의차보존회 회원들은 이영미(1급 전문사범교육생)회장을 비롯해 2명의 2급 지도사범(윤영숙, 박현숙)과 10여 명의 회원이 2급 지도사범과 준사범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대흥사 보현전에서 1년에 걸쳐 서난경 지부장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차생활”을 통해 대흥사를 찾은 신도들에게 차문화를 보급하였고 문화재청과 연계해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다례교육을 한 바 있다.

글_2급 지도사범 교육생 최영금



영암군 국화 축제 행사에 아름다운 찻자리 마련

전남지부 영암 들차회에 30여 명 참석

가을이 깊어갈수록 차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11월 8일 전남지부는 영암군 국화 축제 행사에 교육생 및 선배님, 선비님들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운영하였다.

가을에 피어난 덕분에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강한 생명력 국화와 차가 전해주는 넉넉함으로 삶에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날이었다.

전남지부 회원들의 “차 한 잔 드릴까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방문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차를 통해 하나 되게 한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축제에서 영암의 상징물인 국화를 주제로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리는 국화 조형물 등 다양한 전시 공간에 이미숙 명인의 자연 요리, 다식 전시회, 전남지부 나혜영 사범님의 다례 시연으로 축제를 빛내 주었다.

방문한 손님들에게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서 다양한 차를 깊게 체험하고, 차인으로 차와 함께 하는 매 순간이 존중과 예를 다하는 정성이 가득한 찻자리였다.

글_2급 지도사범 교육생 김귀임



전 북 지 부

일본에 전북의 차 향기를 소개하다

전북지부 한일 차문화 교류전 진행



지부장 이 립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일본 교토와 오사카지역 한일 차문화 교류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재일본 대한민국 시카젠 지방본부의 교육장에서 원활하고 보람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조화미 지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 립 지부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선비다례, 규방다례 시연과 전북지부 회원들이 직접 만든 녹차체험, 한국 가루차체험, 다식체험, 한복 입는 법 지도, 그리고 다식체험을 하였는데 참석자들이 한국의 차맛과 향기, 다식을 칭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뜨거운 반응으로 보람이 컸다.

오사카에서는 오사카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황금다실 관람, 금각사의 다실 석가정을 둘러보고 박차를 마쳤다. 마지막 날은 오사카 나니와구에 있는 원천사 상응암(相應庵)의 무샤노코지센케류 다도를 체험하고, 우리는 선비다례 시연을 하며 한국 차문화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교류 시간을 가졌다.

리큐의 고향인 사카이시의 리쇼노모리 센리큐 다도관에서 복원해놓은 리큐의 다실 대암(待庵)을 관람하고, 마침 핼러윈날 기념 토끼 모양 생과자와 우라센케류 다도를 체험했다.

글_지부장 이 립



전국 청소년 차예절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에 전주 동암고 오유찬 수상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12일(토) 오후 1시 전주곤지중학교 강당에서 전국 청소년 차예절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림 지부장의 대회사에 이어 김가영 부회장님의 대독으로 최소연 이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이 수여되었는데 대상(전국)은 전주 동암고등학교 오유찬 군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지역 대상은 김승현 군

이 전북 특별자치도지사상을 받았다.

참가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행사로 매듭공예, 황차, 가루차 체험장, 전통 발물레 체험장 등이 펼쳐져 경연을 기다리거나 마친 후 즐겁게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글_지부장 이 림



충 북 지 부

무심천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

찾자리(茶席)경연대회 성황리에 마치다



지부장 박숙희

우리 지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예절의 중요성을 일깨워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자 11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청주 문암생태공원에서 '2024 무심천 다(茶)함께 페스티벌(fesTEAval)- 차(茶)자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가 주관하고, 충청북도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장년부(禮), 청년부(智), 유·초등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개인별 찾자리에 대한 소개, 전체적인 조화, 예술성, 차 내는 법, 예절을 겨루되, 시민들을 손님으로 맞아 직접 차를 우려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경연을 벌였다. 참가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개성 있는 찾자리에 시민들이 직접 앉아 차를 마실 수 있

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차 예절 경연대회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상(충청북도지사상) : 한영선, 허윤숙
- 금상(충청북도의회장상) : 임미희, 김정빈
- 금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 이정애, 오정연
- 은상(청주시장상) : 정운경, 김민석
- 은상(청주시의회장상) : 김동례, 정미영
- 동상: 윤기순, 박미경 외 다수
- 차꽃상(유·초등부): 이강우, 한지율, 김민지, 김민준, 임수애, 임수아
- 공로상(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상) : 김동례, 윤기순



사범회 9월 모임 차도구 바자회 열다

차생활 점검의 시간이 되다

충북지부는 9월 9일 사범회 겸 차도구 바자회를 열었다. 지부장님이 그동안 갖고 있던 다구와 지부의 물품들을 나누는 자리로 다양한 차도구의 면



모를 볼 수 있는 즐거운 자리였다. 참가한 사범들은 필요한 다구를 마련하며 그동안의 차생활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범 여행 다녀오다

군산 문화유적지 탐사

11월 10일 우리 지부 사범회는 사범 여행을 군산으로 다녀왔다. 사범들의 친목 및 차문화 관련 유적지 탐방을 위해 해마다 여는 사범 여행은 사범회의 자랑이다.

올해는 고려시대 중국교류의 문이었던 군산을 찾



아 곳곳에 남겨진 유산을 살펴보며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바닷길을 가로지르며 한 해의 스트레스를 풀어 보았다.

북세종지회 동아리 '다소곳이' 결성

다도 교육 진행하다

북세종지회는 차를 좋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친목과 교류의 동아리 '다소곳이'를 결성하였다. 차로 인한 여유를 만끽하고 차문화와 차예절 교육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며, 일상에서 나눔과 배려의 차문화를 생활화하고 싶은 20명의 회원이 모였다.

첫 번째 활동으로 세종지역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시간씩 4회에 걸쳐 우리 차문화의 역사, 차의 성분과 효능 등 이론과 다구 사용법, 생활차 실습의 다도 교육을 진행했다.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이정

수 북세종지회장은 처음 여는 교육이니만큼 회원들과 교감을 나누며 즐거운 교육 자리를 펼치고자 노력했다.



사범교육반 문을 열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과정

우리 지부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과정의 문을 열었다. 시작이 반이라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차를 배우려는 의지와 열성은 누구보다 뛰어난 참

가자들로 우리 지부는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응원하고 있다.

2024년 12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 접수: 2024년 12월 7일(토)까지
- (사)한국차문화협회 홈페이지 민간자격 (www.koreatea.or.kr)
- 전형료 : 국민 827-25-0015-983 / (사)한국차문화협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1급,2급,3급)

등록번호(제2010-026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4년 12월 21일(토)	2024년 12월 28일(토) 2025년 01월 11일(토)
전형료	■ 3급 : 60,000원 ■ 2급 : 80,000원+40,000원(별도) ■ 1급 : 100,000원+40,000원(별도) (사범연회비, 우송료 별도)	

인성교육예절지도사(2급)

등록번호(제2015-00531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4년 12월 21일(토)	2025년 1월 11일(토)
전형료	■ 2급 : 80,000원 ■ 1급 : 100,000원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단일등급)

등록번호(제2015-005316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4년 12월 21일(토)	2025년 1월 11일(토)
전형료	■ 100,000원	

- 장소 : (사)한국차문화협회 교육장
- 자격검정 최종 발표 : 2025년 1월 22일(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환불규정 : 접수마감 전까지 응시료100% 환불 / 검정 당일 취소 시 응시료 30% 공제 후 환불
- 자격관리기관정보 - 기관명 : (사)한국차문화협회 / 대표자 : 최소연
- 연락처 : (02) 719-7816 / 이메일 : koreatea@unitel.co.kr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3길 34, 3층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는 '등록민간자격 자격검정' 시행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제64회 동계연수회

1. 날짜: 2025년 2월 8일~9일 (1박2일)

2. 장소: 호텔푸르미르 (경기도 화성)

3. 회비

- ① 임원 : 15만 원
- ② 사범 : 10만 원
- ③ 교육생, 일반인 : 15만 원
- ④ 학생(초,중,고) : 8만 원
- ⑤ 유치원생 이하 : 무료

4. 접수마감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 9월~ 11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5,918,000원)

특별회비(임원)

이사 · 이석예 (500,000원)

특별회비(사법) (30,000원)

경남지부 · 이영애, 김둘자

광주지부 · 전경희, 백기해, 최기숙, 김가혜, 이서현, 박금단, 박은희, 이봉금, 이영희, 임영신, 박숙현

동수원지부 · 정옥연, 강영자, 송은정, 김정인, 조병주, 조덕희, 김미영, 정숙현, 이강복, 김지원

부산지부 · 김행숙, 이정옥, 김정숙, 심현숙, 이은숙, 윤명희, 김미경, 최경화, 김선희

서울제1지부 · 김은정, 이상길, 송윤영, 유성자, 박선옥, 조용연, 진인순

서울제2지부 · 이정옥, 이복순

아산지부 · 전유자

인천지부 · 김태전

전남지부 · 서정인, 성애숙, 서희수, 조애순, 최은희, 김영숙, 이애숙, 국근섭, 김현정

전북지부 · 양옥임, 정점순, 정인숙, 안영래, 김선이, 이현숙, 모영순, 김은순, 이지연

충북지부 · 이재연, 김희민, 강유주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산소 이전 찬조

최소연 이사장 공승편

부회장님단에서 점심 식사대접

서울제1지부 · 꽃바구니 2개(지부장1개, 총 이사님들1개)

인천지부 · 최지원 인천지부장 - 쑥인절미 / 강희옥 감사, 조영아 이사, 이막동 이사, 이금숙 이사, 유현주 팀장과 함께 과일 준비

전남지부 · 임원 일동 - 사평기정떡 5박스.

서울제2지부 · 정순영 - 월병 / 장호순 - 양갱 / 이사 일동 - 오색 송편 / 허유진 총무 - 아몬드쿠키

광주지부 · 노영숙, 박삼숙 이사 - 유기농한과 유과

수원지부 · 정경희 지부장 - 난 화분

현금 찬조금(3,100,000원)

이혜자 수석부회장 500,000원

대구경북1지부 박경숙 지부장 200,000원

인천지부 이막동 이사 100,000원

김가영 부회장 300,000원

부산지부 조정미 지부장 300,000원

순천지부 김영애 지부장 200,000원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 200,000원

서울제1지부 이석예 이사 100,000원

강원지부 김미숙 지부장 200,000원

경기지부 연규남 이사 500,000원

경남지부 조희옥 이사 300,000원

아산지부 김태임 지부장 200,000원.

지출(지출 합계 : 900,000원)

버스 대여료 300,000원 / 직원(민 팀장, 유 팀장, 고 부장) 격려금 600,000원

잔금: 3,100,000원 - 900,000원 = 2,200,000원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승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thinkmy@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4년 9월-11월 우승료 납부자 명단

9월 통장 입금

경남 · 김세란 / 광주 · 우화민, 전경희 / 대구경북제1 · 천미경, 최수연 / 인천 · 유
연경, 이서윤, 이미경 / 전북 · 유대영, 명 철, 윤성진, 노 을, 박은숙

10월 통장 입금

경남 · 임현섭, 김광수, 임하늘, 정환숙, 김둘자, 이영애 / 광주 · 백기해, 최귀숙, 박
은희, 이영희, 이서현, 임영신, 이봉금, 박숙현, 김항순 / 대구경북제1 · 이미숙 / 서
울제1 · 신동란, 류보미, 박은주, 김명진, 고유나 / 서울제2 · 이정옥, 이복순 / 인천
· 이미경, 양수남, 박하숙, 김영순 / 전남 · 박금단 / 충북 · 한수윤, 김민석, 조은영

11월 통장 입금

서울제1 · 유성자, 조용연, 박선옥 / 아산 · 전유자 / 인천 · 김태전 / 전남 · 류선희,
정경미, 조애순, 최은희, 이애숙, 국근섭, 김현정, 김영숙, 서정인, 서희수 / 전북 ·
양옥임, 정점순, 정인숙, 이현숙, 김은순, 이지연2, 김선이, 모영순, 안영래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다맥전수자 이경숙님